

개혁과 국민통합의 시대
노무현과 함께





신뢰

변함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소신이 있습니다

“88년 5공비리 청문회 스타, 노무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의 국회의원 활동으로

이렇게 강한 인상을 남긴 정치인은 또 없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은 이제 주목받는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선만을 위해 당을 버리지 않았던 변함없는 원칙.

개혁과 통합의 한길만을 고집해온 확고한 소신.

정치적 위상은 변했어도

출발점에서의 원칙과 소신은 일관되게 지켜온 사람.

이러한 그의 정치철학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정치인, 노무현

지금 우리에게 노무현이 필요합니다.

그의 원칙과 소신이 필요합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

이제 새로운 정치발전이 필요합니다.

노무현의 원칙과 소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씨가 신뢰를 강조하는 건 한국 정치의 사활이
신뢰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전선이
정치권 대(對)비정치권의 전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즉 국민의 정치혐오증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5
GRANGE ROAD
Kim Lodge



화합

개혁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참된 국민 통합을 완성합니다

국가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경제운용에도 수많은 고뇌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의 실수가 엄청난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정부' 성공 여부에 우리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온갖 부정과 비리가 척결되어야 합니다.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동서로 갈리고 자연으로 나뉘고 혈연으로 분리된,
 지역과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과 국민통합만이 난국 극복의 열쇠입니다.
 때로는 애정어린 비판으로, 또 때로는 결정적인 지원으로
 오늘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해온 화합의 정치인 노무현.
 지금 우리에게 노무현이 필요합니다.
 그의 개혁과 통합 정신이 필요합니다.


노사정의 화합과 영호남의 단결!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합니다.
노무현의 개혁과 통합 정신이 필요합니다.

김대중후보가 당선되면 동서화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노무현은 동서화합의 중심에서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어디에 가든 배척받거나 미움을 받지 않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 나라의미래를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 김대중후보를 위한 노무현의 TV찬조연설문 중에서』



능력



새시대에 필요한 인물입니다 21세기를 개척할 인물입니다

아침에 들은 정보가 저녁이면 낡은 것이 되는 시대.
정보화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명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만큼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합니다.
21세기 통일된 민주국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민의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만의 것'입니다.
상고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유능한 변호사,
재야운동에서 청문회스타, 그리고 최연소 최고위원을 거친 정치인.
밤을 지새우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몰두하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져온 지방자치실무연구소장,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정치인, 노무현
지금 우리에게 노무현이 필요합니다.
그의 도전과 개척정신이 필요합니다.

가자! 노무현과 함께

개혁과 국민통합의 시대로



개혁과 국민통합의 기수, 노무현 그가 걸어온 길은 우리 정치의 밝은 미래로 뻗어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청년정신으로, 6월항쟁의 주역이 된 인권변호사

1946년 경남 김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힘겨웠던 청소년기를 보낸 노무현. 부산상고 졸업 후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그는 마침내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어 제17회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판사 생활 이후 변호사로 일하던 그는 1981년 부림사건 변론을 맡으면서부터 이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권변호사로 변신, 마침내 1987년 6월항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주역이 됩니다.



5공비리 청문회 스타에서, 소외된 계층의 돌도없는 대변자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명이었던 노무현은 5공의 실세였던 허삼수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됩니다.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보았던 5공비리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와 추궁으로 감동을 불러일으켜 청문회 스타로 부각된 노무현. 그는 노동위원회에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소외된 계층의 돌도없는 대변자로 자리잡았습니다.



개혁과 통합의 한길을 달려온 원칙과 소신, 신리의 정치인

1990년 온 국민을 경악케 한 3당합당. 그러나 노무현에게는 한치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소신있게 3당합당을 거부하여 14대 총선에 나섰지만, 지역감정의 높은 벽은 그에게 패배의 쓴 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과 통합정신에는 결코 패배가 없었습니다. 14대 대선때 김대중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 청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그는 93년 통합민주당의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이후 사단법인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하고 S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는 등 오히려 그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국민의 청부 출범의 주역으로 희망의 21세기를 여는 정치지도자

마침내 제15대 대선. 노무현은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부산·경남 공동선거대책회의 의장으로 활동하여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4지방선거의 국민회의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출마했다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 후보 사퇴를 한 뒤 종로구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7월 21일의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21세기를 온몸으로 열어가는 주목받는 정치지도자 노무현, 그가 걸어온 길은 우리 정치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